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193>

JCCT 2018-2-23

사이버 금융사기의 체험적 사례 연구: 구체적 과정과 대책을 중심으로

An Experiential Case Study of Cyber Financial Fraud: Focusing on specific processes and measures

한동호*

Han, Dong-Ho*

요약 본 연구는 필자가 2017년 4월에 실제로 당했던 파밍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이버 금융사기에 대한 체험적 사례연구이다. 범죄나 재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필자는 8년을 키워 가족이 된 반려견이 방광염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신적 혼란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결과 사이버사기를 당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로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나 그 기간이 8개월이나 되었다.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결과 또 다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피해예방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금액이 이체될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거나 더 엄격한 확인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합정거래 수단을 강구한다. 셋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조속한 상환을 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요어 :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자 연구, 참여관찰, 체험적 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ential case study of cybercrime fraud that combines pharming and voice phishing in April 2017. Research on victims who have actually suffered in the study of crime or disaster is a very useful field in establishing crime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Korea is relatively poor in this kind of research. I got cyber fraud as a consequence of my loss of reasonable judgment due to mental confusion when a companion dog who was raised for 8 years was in a very dangerous situation with cystitis. Fortunately, I received all the damages in a quick report, but the period was eight months. It took too much time to get back all the damages, so I had to suffer another pain. Based on my experience, I suggest damage prevention measures. First, when a certain condition and a certain amount are transferred, the transaction is automatically stopped or a more strict confirmation procedure is added. Secondly, trafficking means to arrest the perpetrator without any harm to the victim is sought. Third, the victims of crime should be promptly reimbursed for damages or a system for lending their living funds to zero or lower interest rate.

Key words : cyber financial fraud, victim research, participatory observation, experiential case study

*정회원,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접수일: 2017년 12월 10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1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6일

Received: December 10, 2017 / Revised: January 1, 2018
Accepted: February 6, 2018
*Corresponding Author: hdh68ksu@ks.ac.kr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Kyungsoong University, Korea

I. 서론

한국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화의 악영향 역시 무시 못 할 수준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하다. 네트워크 범죄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범죄의 객체에 정보라는 요소가 추가됨으로 인해 정보의 조작이 범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네트워크 사회의 기술발전의 변화가 법적 제도의 변화보다 월등히 앞섬에 따라 현실과 법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적 미완성과 이용자의 미숙함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1]

이 중의 하나가 스미싱, 파밍, 보이스 피싱 등의 사이버범죄이다. 필자는 2017년 4월에 스미싱, 파밍, 보이스 피싱 등이 결합된 금융사기를 당해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모든 금액이 단번에 사기계좌로 이체되는 변고를 당했다. 사기를 당한 당시에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우연적 계기로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 사기임을 인식하고 신고를 했다. 본인에게 진화를 했던 금융당국자의 말처럼 정말 운이 좋게도 사기당한 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금액을 모두 돌려받은 시기는 2017년 12월로 그 기간 동안에도 없어진 금액을 채워놓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찰서와 우체국 등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소모가 너무 심해서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평상시와 같은 생산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 요컨대 경제적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정상적인 심신을 유지하지 못해 계획되어 있던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적 손해를 아주 크게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사기를 당한 과정이 평소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적으로 그 문제만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언론에서 흔히 보는 교수, 변호사, 의사 등도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는 기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2] 또한 이러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사기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도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본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디지털범죄관련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체

험적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 측면에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에 기반을 둔 사례연구(case study)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론과 관련연구

1. 연구방법론 검토

1) 참여관찰

본 연구는 계량화된 변수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의 양적연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적연구의 목적은 계량화된 변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explanation)하거나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이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설명이나 기술이 아니라 특정 현상에 대해 이해(understanding)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사기당한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이스피싱을 남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3]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사에서 인용되는 피해사례가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과 해당 사건의 맥락 등이 기사에서는 빠져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사실만을 적시한 일반적 기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며 심층취재를 한 르포기사의 경우에는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본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심층적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질적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참여관찰이다. 참여관찰은 특정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나 그 대행자인 관찰자(observer)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관찰집단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 동화되어 그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두껍게 기술하기(thick description)가 이루어진다.[4] 본 논문에서 관찰집단은 디지털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집단의 속성상 사기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만 개념규정이 가능하므로 본질적으로 사기과정의 참여관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필자는 우연히도 사기를 당했고 참여관찰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므로 사실상 참여관찰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사례연구

본 연구는 필자가 당한 사기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므로 단일사례연구(single case study)라 할 수 있다. 금융사기를 당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함께 연구한다면 다중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필자의 사례를 두껍게 기술하기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분석의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도구적 단일 사례연구, 집합적 또는 다중 사례연구, 본질적 사례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이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선택하는 도구적 단일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5]

2. 관련 사항

1) 편도체 납치

뒤에서 살펴볼 사기를 당한 구체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필자가 사기를 당하는 순간에는 정상적·합리적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교수, 의사, 변호사, 증권사 직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기를 당한 이유는 그 당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실마리를 제공한다. 마크 고울스톤에 의하면 인간이 고도의 긴장상태에 빠진 결과 ‘뱀의 뇌’ 상태가 된다면 어떠한 설득이나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뇌는 진화의 결과 생성된 것으로 진화과정에서 발달한 뇌 세 가지들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파충류의 뇌(뱀의 뇌)는 가장 안쪽에 있으며 ‘투쟁-도피’ 반응을 관장하는데 즉각적 행동과 반응이 전부다. 둘째, 포유류의 뇌(쥐의 뇌)는 중간층을 차지하며, 감정을 주관한다. 셋째, 영장류의 뇌(인간의 뇌)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상황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식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운다. 영장류의 뇌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평소에는 영장류의 뇌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이성적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른바 ‘편도체 납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편도체가 끊어 넘치게 되어 감

정과 사고를 관장하는 뇌의 조종사(전두엽)가 통제권을 상실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편도체 납치’가 발생하면 이성적인 사고능력은 감소하고 기억기능은 불안정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전체를 관통한다.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는 사람마다 편차가 존재한다. 짧은 시간 내에 편도체 납치를 벗어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동안 편도체 납치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6] 편도체 납치 상태는 주변에서 강제적으로 각성을 시킬 수도 있다. 후술하는 금융사기 일보직전에 은행직원 등이 사기임을 인식시켜 피해를 방지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III장에서 살펴볼 필자의 사기과정을 보면 필자가 ‘편도체 납치’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사기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주변의 도움으로 사기를 피한 사례

인천논현경찰서는 2018년 2월 2일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우체국 직원 임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피해자 백모씨는 1월 30일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포싱범의 전화를 받고 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씨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1천2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속은 김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1천200만원을 인출하려던 중 임씨는 인출명목에 대해 횡설수설하던 김씨를 보고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112에 신고해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7]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신속한 대처로 500만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KEB 하나은행 청라지점 은행원 손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A씨가 한통의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은행에 찾아와 급하게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손씨가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금융사기로 밝혀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8]

III. 금융사기의 실제 과정과 분석

1. 금융사기의 실제 과정

1) 사기 과정의 두껍게 기술하기(thick description)

필자는 직장이 부산지역의 사립대학이고, 고등학교 교사인 부인의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자녀의 학교 역시

서울에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필자는 매주 또는 격주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부산으로 생활기반을 합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9년에 아이들이 원해서 애견센터에서 수놈 말티즈를 입양해서 현재까지 서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상태이다. 2017년 당시 8년을 키운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된 ‘편도체 납치’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반려견이 아파서였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인데 2012년부터 살았고, 그 이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주택에서 살았다. 아파트와 개인주택은 15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개인주택에 살 때는 반려견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건강이 아주 좋았다.

소형견이 자주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가 방광에 칼슘, 무기질 등이 돌처럼 쌓여서 살에 상처를 주게 되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현상이다. 사람이나 대형견은 초음파를 쬐서 깨트려서 오줌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형견은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해서 유일한 방법이 마취수술로 방광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이 높다. 문제는 사료와 간식 배급 문제로 인해 반려견이 방광 절제 수술을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받은 상태였다. 두 번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이후 발생했으며, 관리 받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장이 한 번 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준 상태였다. 그런데 4월 1일 토요일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1박을 한 후 2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려견의 상태가 최악인 것이 발견되었다.

이상한 자세로 선채 앉지도 못하고 오줌도 누지 못해 배변패드와 피방울과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일요일이라 원래 가는 동물병원도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건대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었기 때문에 검사비용도 매우 비쌌고 수술비용으로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금액이 너무 비싸고 수술을 원래 다니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므로 월요일 아침에 반려견을 찾아서 맡기기로 했다. 원래 다니던 병원 원

장도 건대출신이라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건대병원에서 싫어하지는 않았고 다음날 진료자료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지독한 방광염에 슬러지가 잔뜩 쌓여서 방광절제수술을 했고 동물병원에 3주가량 입원을 했다. 어쨌거나 건대병원에 반려견을 맡긴 후 원래 서울에 와서 처리할 계획이던 일을 하려고 밤에 컴퓨터를 켜다. 반려견에 대한 걱정으로 심신이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반려견의 스트레스가 쌓인 결과 병이 생기고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계속 무거운 상태였다. 이때 가짜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이 컴퓨터에서 계속 떠올랐다. 평소 같았으면 이것이 악성코드에 의한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빨리 백신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으로 위장한 팝업창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계좌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은행들의 목록이 있었다. 국민은행을 클릭하자 나타나는 화면은 평소에 금융거래를 하려고 접속하던 국민은행과 완전히 일치했다. 당시 국민은행 정보창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욕했을 뿐이다. 계좌정보를 입력한 다음에는 더 이상 팝업창이 뜨지 않았다. 그래서 하려 했던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건대병원에서 데려 반려견을 찾아서 관리 받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병원장으로부터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증세가 심각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다음은 어떡할 것이냐 등의 잔소리였다. 병원에서도 내 옆에 붙어있던 반려견을 맡기고 병원을 나와 이전에 살던 개인주택으로 갔다. 그곳에는 독신인 필자의 친형이 2층에서 살고 있고 1층은 세를 주고 지하실에 필자의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2016년 12월 경에 건축업자가 필자의 집을 포함한 주변 개인주택 3채를 단체로 구매해서 원룸을 건설하려고 하는 중에 있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 6월에 남은 금액을 받고 계약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에 올 때마다 지하실에 들려 책을 부산으로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도 책을 가지러 옛날 집에 가서 2층에서 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 금융감독원이라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고 필자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때 옆에 있

던 친형이 지금 받는 전화가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경고를 했다. 하지만 필자가 금감원 전화라고 부인했다. 친형이 그냥 수긍했는데 금감원과 연구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 이 상황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인간이 고도의 긴장상태에 빠진 결과 ‘뱀의 뇌’ 상태가 된다면 어떠한 설득이나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마크 고울스톤의 주장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 상황에서 마치 실로 조정되는 인형처럼 사기범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스마트폰도 꺾는다. 그리고 나서 지하실에서 책을 카트에 넣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도중에 끌고 가던 카트의 바퀴가 부러졌다. 바퀴 부러지는 순간에 아주 큰 소리가 났는데 이때 제 정신이 돌아왔다. 즉 ‘편도체 납치’ 상태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바로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을 켜보니 금융사기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바로 메시지에 있는 신고하라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 점포는 일반 지점이 아니라 거액을 맡기는 VIP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점포였는데 그곳으로 돌아가 사기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다행히 그곳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줬다. 1차로 이체되었던 우체국 계좌에 11,890,000원이 남아있는 것은 그곳에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피해액은 1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몇 주 뒤에 미래에셋 증권으로부터 사기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위의 내용을 보면 “이거 실화냐? 소설 아니냐?”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 이 내용을 친한 동료 교수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반응이 “믿을 수 없다”였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사기범이 직접 전화를 했을 때가 반려견이 수술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필자의 정신은 그쪽으로만 쏠려 있었고 속어로 ‘뉘어나간 상태’였고 학문적으로는 ‘편도체 납치’ 상태였다.

카트의 바퀴 부러지는 소리로 인해 정상상태를 찾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행기사고,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편도체 납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재난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9] 비행기 사고에서 승무원들은 소리를 크게 외치며 생존자들의 탈출을 인도하게끔 교육받는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이 ‘편도체 납치’ 상태에서 탈출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2) 구체적 피해액과 상환 과정

2017.4월3일(월) 사기 당시 (국민은행 통장)에 잔액 8,959,925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체국 사×× 계좌)로 2390만원이 이체되었다. 이것은 잔액과 마이너스 통장 금액의 최대치가 이체된 것이다. 사기금액이 이체된 곳은 2개의 통장이었다. 첫번째는 우체국통장이고, 여기에서 다시 미래에셋 이××의 통장으로 2회에 나누어 1,201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체결과 잔액은 -14,940,075원이 되었다. 원래 통장에 8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카드 대금일이 매월 1일인데 주말이라 월요일인 4월3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서 사기 신고를 한 후 카드대금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일부를 입금했다. 다음날부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해 통장에 입금했다. 아래에 정리한 것처럼, 그동안 불입했던 보험의 약관대출, 사학연금의 생활자금 대출, 보험의 중간정산, 부동산 거래의 잔금취득 등으로 버텼다. 사기당한 사실을 형에게만 알리고 집사람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결국은 알려지게 되었다. 경찰서와 법원에서 사건진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등기로 계속 집으로 보내줬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난감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4월 4일 삼성화재대출	5,390,000
4월 5일 사학연금대여	7,700,000
5월 23일 동양생명대출	730,000
6월 2일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1,000,000
6월 16일 우체국 특별사기환급	11,890,000
6월 30일 부동산 거래 잔금 취득	
8월 11일 미래에셋 이××	6,010,000
12월 5일 연계입금 이××	6,000,000

위에 표시된 것처럼 6월 16일, 8월 11일, 12월 5일 3회에 걸쳐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필자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전적 손해가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차적으로 사기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통장에서 인출되기 전에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가 정지되고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기금액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삶 자체가 아주 힘들어지고 사기 이체된 금액만큼을 다른 어느 곳

에선가 대체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사기피해자의 생활을 아주 힘들게 한다. 필자의 예를 들자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 여름방학 끝날 무렵까지 2편의 단독논문을 완성해서 투고하는 것이었지만 사기를 당한 이후 원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10월말에 공동연구 한편 투고한 게 다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사기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금전적 피해와 상관없이 사기피해자의 생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사기로 인한 금융거래의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이체를 포함한 거래자체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원인 분석

필자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기를 당한 원인을 과정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기적 PC 관리 부족

필자는 일주일 또는 격주 단위로 서울과 부산을 주말왕복하며 생활해왔다. 그런데 필자가 서울에 가서 사용하는 PC는 본인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주일 또는 이주일 만에 사용이 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으므로 컴퓨터 백신으로 점검하는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를 당하고 난후 V3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이때 문제점을 자각하고 난 후 이후로는 서울에서 PC를 사용할 때 마다 정밀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피해가 커진 모바일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2) 반려견의 방광염으로 인한 ‘편도체 납치’

앞에서 아주 자세히 기술한 것처럼 8년간 길러서 가족이 된 반려견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도체 납치 상태에 빠진 것이 과잉사기를 당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다. 사기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결코 감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타격을 받아 편도체 납치에 빠진다면 사기를 당하게 된다.

3) 주변 사람의 강력한 통제 부족

앞에서 본 것처럼, 우체국 직원과 은행 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필자가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던 친형

은 나중에 말하기를, “전화기를 뺏어서라도 계속 통화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기 현장에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자책감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상황적으로 디지털 사기에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변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해야한다. 상대방의 평소 모습을 기준으로 설마 그렇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주저하게 될 경우 사기범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IV. 선행연구와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1.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嚇)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증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동법 제4조는 지급정지 항목을 다음처럼 제시한다.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의 지급중지 규정은 일단 이체가 된 다음에 범인이 은행에서 찾아 현금화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일단 이체가 된 순간부터 지급중지가 된다 해도 필자의 경우처럼 피해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 관련연구

최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재현과 김상운은 모바일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해 연구했다.[10] 스미싱, 파밍, 피싱,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으로 모바일범죄유형을 나누고 모바일범죄 예방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연과 장영현은 파일을 암호화시켜 해커가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수준의 악랄한 악성코드인 랜섬웨어를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1] 신지호는 스미싱 범죄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를 연구하고 있다.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상 즉시강제를 사이버 범죄에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2] 오세연은 사이버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활용방안을 탐구했다.[13] 단축 URL의 행위 분석을 통해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14] 피싱사이트들의 도메인 특성을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려는 연구도 있다.[15]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살펴본 것처럼 범죄에 활용된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재난연구에서도 보이는데 범죄피해자나 재난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질적연구는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 이러한 분야는 피해자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서구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재난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1) 일정금액과 일정조건 이체 시 자동거래중지

필자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금융당국이 해당거래가 사기에 의한 거래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메시지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당시 본인은 범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스마트폰을 껐다. 나중에 제 정신을 찾고 스마트폰을 켜보니 공인인증서가 변경되어서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사기범 지시대로 스마트폰을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거래는 중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금융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특정한 금융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중지되거나 더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 계좌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① 처음 거래 계좌에 거액 이체
- ② 처음 거래 계좌에 마이너스 통장 전액 이체
- ③ OTP가 변경된 후 바로 거액 이체
- ④ 공인인증서가 변경된 후 바로 거액 이체

2) 함정 거래 수단 강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통장에서의 이체는 중지되지만, 사기범이 이체받는 통장에는 이체가 되는 것처럼 속여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여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일단 통장으로 이체가 되면 돌려받기까지 피해자가 고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범인에게만 이체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없이 범인체포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 화폐가 범인에게 인도될 때 특별한 표시를 해서 자금의 방향을 추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할 수 있다.

3) 피해금액의 조속한 상환 또는 대여자금 마련

필자의 경우 4월에 금융사기를 당했지만 전체금액을 다 돌려받은 시기는 12월이었다. 무려 8개월이나 걸린 뒤에야 사기금액을 전부 돌려받은 것이다. 필자는 대학교수이고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기간 동안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고생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기금액이 이체되는 통장이 해킹당한 통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금화에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필자가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본인과 통화를 했던 금융당국자는 말했다. 따라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중지 상태로 사기금액을 돌려받

는 것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필자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라면 훨씬 경제적 고통이 클 것이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체를 써야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현재보다 더 빨리 상환해야 한다. 법적 절차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면 사이버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액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 이들에게 무이자 또는 아주 저렴한 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필자가 2017년에 당했던 디지털 금융사기의 과정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어 ‘편도체 납치’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피해구제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중지가 중심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일정금액과 일정조건 이체 시 자동거래중지, 범인 체포를 위한 함정거래 수단 강구, 피해금액의 조속한 상환 또는 대여자금 마련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ferences

[1] G. C. Lim, the 21th Century Internet Policy and Law. Seoul: Bookforyou. pp.274-278. 2013.
 [2] Nocut News “From the doctor to the broker ... voice phishing targeting Professional” <http://www.nocutnews.co.kr/news/4783255>
 [3] Channel A. “A voice phisher who pretends to be an investigator for 20s....Different Voice Phishing Techniques According to Age.” <http://v.media.daum.net/v/20180205195641695>
 [4]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1973..
 [5] John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iditon. Sage Publication. 2007. In this paper, Korean translation(2010, p.112) is used..
 [6] Mark Goulston. *JUST LISTEN: Discover the Secret to Getting Through to Absolutely Anyone*. New York: AMACOM. 2009. In this paper, Korean translation, published in 2010, is used.

[7] Kihoilbo. “The post office staff blocked voice phishing damage by using her wisdom.”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6083>
 [8] Daily Today. “West police passes a certificate of appreciation to a banker because of preventing voice phishing victim.”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4>
 [9] Amanda Ripley, The Unthinkable: Who survives when disaster strikes and why. Three Rivers Press: New York. 2008.
 [10] J. Y. Shin and S. W. Kim, “A Study on Mobile Crime Prevention.”.Journal of Police Science, Vol. 9, No. 2, pp.123-144, 2014.
 [11] Jaeyeon. Moon and Younghyun Chang, “Ransomware Analysis and Method for MInimize the Damag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Culture Technology (JCCT), Vol. 2, No. 1, pp.79-85, February 2016.
 [12] Ji-Ho Shin, “A Study on the Initial Action for the Non-Proliferation of Damage Caused by Smishing.”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Vol. 9, No. 1, pp.33-46, 2015.
 [13] Sei-Yeon OH,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for response of cyber-crime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81-87, 2015.
 [14] Y-B Cha, W-Y Choi and G-S Lee, “Proactive Response Against Smishing Using Shorten URL.”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Vol. 9, No. 1, pp.19-31, 2015.
 [15] Yeon-Gi Jung, “A Study on Blocking Criminal Websites Based on Internet Domain Registration Data of Phishing Sites.”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Vol. 9, No. 2, pp.79-96, 2015.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eo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6)